



▶ 체코 프라하의 밀밭

제공: WMM

눈을 들어 받을 보라

체코 프라하의 한 마을에 노랗게 익은 밀밭이 펼쳐져 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어느새 싹을 틔우고 키가 자라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밀밭을 바라보고 있으니 농부의 땀과 눈물이 전해져 온다.

농부는 추수할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씨를 심는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보셨다. 그의 죽음으로 살아날 영혼들을. 그래서 가까이 밀밭이 되셨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 살아나게 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이 목마른 그녀에게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날 그녀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목마름이 끝이 났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제 바통이 우리에게로 넘어왔

다. 살아나게 될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물으신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GNPNEWS]

“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한복음 4:35)

다음 호는 9월 29일자로 발행됩니다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 구금은 명백한 불법”

서양 법률 전문가들, 중국 사법 체계에 우려

중국 정부가 3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인들의 구금을 정당화 하는 ‘신장에서의 직업 교육 및 훈련’ 백서를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중국 종교자유 전문매체 비터원터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 이 백서에는 법률에 근거한 교육 및 훈련과 수련생의 기본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당초 재교육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중국 정부는 이제 수용소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북政法대학(西北政法大學) 산하 인권 센터 행정 학장인 첸진위(錢錦宇)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용소의 ‘혁신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용소는 온전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의 중국 국경 연구소 연구원인 쉬지안잉(許建英)은 백서에 기재된 요점 중 하나가 훈련 센터 설립을 위한 합법적 토대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소에 구금중

인 아블리지는 “2018년 12월 어느 새벽에 우루무치 시내에 있던 우리 집에서 끌려나와 아버지와 나는 다른 곳으로 이송됐다.”며 “어머니는 아무 것도 없이 쫓겨나 수 킬로미터 떨어진 친구네 집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지내게 해 달라고 간청해야 했다. 일 년 후 모범수였던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구금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세계의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는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 인권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항소 불가능한 대량 구금은 중국 법률상으로도 불법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GNPNEWS]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사무엘하 22:49)

기도 | 위구르인들을 억압하는 중국 당국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위구르인의 참 안식과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86)

“예수쟁이들은 뭔가 답답해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거자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사람이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나눠 피고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지. 예수쟁이들은 나랑 맞지 않아요!” 술자리를 하지 않고 담배도 같이 피우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평가입니다.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수쟁이를 분위기 깨고 단합을 깨는 사람으로 여기겠지만, 진짜 피해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에게 마실 권리가 있듯 안 마실 권리 또한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 분위기 깬다 봐 오히려 전전긍긍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쟁이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 죽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끈하게 술 마시며 노는 것이 무슨 죄냐고 하시겠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누구 위해서 하십니까? 당신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의 결정은 당신 자신이 한 것이지만,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원하는 결정을 합니다.

자아만족을 위해 살아온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된단 말인가?” 걱정되십니까? 그렇게 자아만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불행했던 당신, 예수님이



일러스트=김경선

당신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면 그제서야 행복해집니다. 물어보십시오. 예수쟁이들에게 “행복하냐?”고. 진짜 예수쟁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행복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구하나
 풀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 **뜯어서 접은 전도편지**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이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의소리 도서출판
 복음과기도미디어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 9월 23~30일까지 전국에서 열려



▶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 포스터(출처: 한국창조과학회 캡처)

한국창조과학회와 미국 AiG (Answers in Genesis)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가 9월 23일(월)~30일(월)까지 국내 곳곳에서 ‘창조 vs 진화 vs 무엇이 진리인가?’의 주제로 5차에 걸쳐 진행된다.

창조과학회는 “지금은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면서 “그렇수록 진화론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를 믿는 ‘성경적 창조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다음세대들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집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집회는 테리 모테슨 박사(AiG)와 앤드류 스넬링 박사(AiG)를 주강사로 ‘성경적 창조론 해외 석학 특별강좌’로 시작된다. 9월 23일(월)~25일(수)까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릴 특별강좌는 인본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조설계의 증거와,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창조신앙 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26일(목)에는 한동대학교에서 ‘창조과학 특별 세미나’가, 28일(토)에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KACR-AiG 공동 패밀

리 컨퍼런스’가 열린다. 어린이 세션에는 ‘대홍수 속으로’라는 주제로, 청소년 세션에는 방주를 다루는 ‘In the Ark’, 학부모·성인 세션에는 창조를 다루는 ‘Creation on Air’라는 주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

다음 날인 29일(주일)에는 수원 외국인학교와 성남 주님의 교회에서 ‘Church Ministry’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30일(월)에는 남서울교회에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위한 ‘목회자 선교사 리더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축제를 주관하는 한국창조과학회는 1981년도에 창립되어 인간, 생물체, 우주 등에 내재한 질서와 조화가 우연이 아님을 변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미국 AiG(Answers in Genesis)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창조, 진화, 과학, 지구나이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에 대한 많은 질문에 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단체다. 문의 ☎ 02-419-6465(한국창조과학회)

[GNPNEWS]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 이슬람공격에 소멸 위기

북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 정교회를 대표하는 로렌트 다비레 사제는 8월 초 가톨릭 자선단체인 ‘고통받는교회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계속된 공격으로 기독교인들이 모두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서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에서는 2016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이 계속되던 가운데 지난 6월 27일 부르키나파소 북부에 위

치한 와이구야 교구에서 올 들어 5번째 공격이 발생했다. 당시 바니 마을에서 발생한 공격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있는 시간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비레 사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마을에 도착한 후, 모든 주민들이 땅에 얼굴을 숙이게 하고 조사를 했다. 그중 4명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만약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2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도리 및 카야 교구에서도 공격이 발생했다.

다비레 사제는 “처음에는 말리와 니제르 사이의 국경 지역에서만 활동하던 이들이 점차 내지로 이동하면서 군인들과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회 구조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며 “오늘날 그들의 주된 표적은 기독교인이며, 그들이 종교 간 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르키나파소뿐 아니라 말리와 니제르와 같은 지역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약 4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GNPNEWS]

순회선교단, 전국 7개 지역 순회 더(the) 복음집회

순회선교단은 ‘다른 복음 말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he)의 바로 그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7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7개 도시에서 순회더(the)복음 집회를 갖는다.

이번 집회는 김용의 선교사(로그미션 대표)가 주 강사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를 중심으로 메시지가 선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회선교단 홈페이지(wmm119.co.kr)를 참조. 모임 장소와 일시,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다.

▶대구 9월 17일(화) ☎ 010-2386-4641 ▶대전 9월 18일(수)

☎ 010-3911-4641 ▶광주 9월 20일(금) ☎ 010-3493-4641 ▶전주 9월 24일~25일(화~수) ☎ 010-5146-4641 ▶서울 9월 26일(목) ☎ 010-3314-4641 ▶강원 9월 27, 29일(금,일) ☎ 010-3924-4641 ▶부산 9월 28일(토) ☎ 010-3707-4641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8. 19 ~ 8. 31)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인도서 집단 성폭행 당하고도 식발에 조리들림까지

인도에서 15세 소녀가 6명의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지만 마을에서는 소녀를 무고죄로 몰아 식발시킨 후 마을을 돌게 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IANS통신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정육에 미쳐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한 소녀의 영혼을 무참히 짓밟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복음을 선포케 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존재를 알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인도의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아편 진’ 채취에 중학생 동원

데일리NK는 8월 23일 평안남도 소식통 인용, 북한 북부 산간지역에서 노동당 주도 아편 대규모 아편 재배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아편 진 채취 작업에 “평안남도 중학교 4~5학년 학생 대다수가 양강도와 함경남북도의 대규모 아편 농장에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주님, 악한 일에 동원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시오.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 땅에 남겨두신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영원한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가 무너진 자들이 완전한 피난처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UN사무총장, 한·일 양국간 관계 개선을 촉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3일(현지시간)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료 결정하는 등 한일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데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내 안정과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한일 양국간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뉴시스가 8월 24일 보도했다.

한·일 양국이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는 가운데,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서로가 결코 연합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묶으신 화평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결과 맺기를 간구합니다.

한국 정부, 사상최초 514조 예산 편성으로 31조 이상 적자 예상

한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9.3% 늘어난 액수라고 펜앤드마이크가 29일 보도했다.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적자 규모를 31조 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경제 위기에 빠진 한국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섭과 같은 이들을 일으키사 사리사욕이 아닌 영혼들을 사랑하여 충성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부요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9월 9일 ~ 9월 21일

9월 9일 ~ 9월 14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9.9(10~22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9.9-13(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9.9-10,13~14(19~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9.10(10~12시) ▶경기 의정부 / 녹양교회(정**)010-8700-9233, 9.10~13(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9.11(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9.11(14시)~13(14시) ▶전북 익산 / 사랑샘교회(홍**)010-3245-7818, 9.12(11~13시) ▶인천 연수 / 인천안다독교회(이**)010-4200-5237, 그외 6교회 진행중.

9월 16일 ~ 9월 21일 ▶인천 계양 / 효성동교회(조**)010-2632-7457,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9.16-18(16-18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김**)010-8432-3698, 9.16-20(19-23시) ▶광주 남구 / 십자가복음교회(김**)010-9883-2347, 9.18(06시)~9.19(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9.20(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9.20(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9.20(10시)~21(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송**)010-6779-4120, 9.20~21(10~22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9.21(09~21시) ▶전북 전주 / 전성교회(이**)010-5877-9141, 그외 10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20대의 동성결혼 찬성 가장 높아... 반윤리적 교과서 때문

한국사회의 세속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중 다음세대의 사고를 기존 전통적인 윤리관에서 벗겨내려는 급진 개혁주의자들의 시도가 제도권 학교의 세속화를 탈윤리, 반윤리적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의 효과는 이미 통계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8월 30일로 예정된 인천 쿼터집회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동성결혼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현행 교과서로 학습한 20대의 경우, 찬성(48.6%)이 반대(41.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77.6%, 60대 이상 80.5%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추진 되어온 친동성애 성향 교육의 영향임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결과인 셈이다.

도대체 현재 한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윤리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본지는 2018년 말 발표된 생명인권학부모연합(대표 허은정) 자료와 2019년 초 발표된 아산시 교과서 문제점 포럼 등을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젠더 교육현황을 살펴본다.

사회적 성(性)을 강조한 탈윤리 교육, 2009년부터

최근 한국의 학부모와 한국 사회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내용을 접하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



▶ 거리에서 성관계가 학생의 권리라며 학생인권운동을 하는 학생들(출처: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 캡처)

다. 현행 교과서에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이 시작된 것은 이미 10년 전인 2009년부터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급진 개혁주의 세력이 이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한국의 대다수 학부모와 한국 교회는 까마득히 몰랐다.

최근 본격화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규 제정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급진 개혁세력들이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수면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교과서의 성윤리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내용이 포함된 것은 2009년부터다.

중학교 보건 교과서(동화사, 2009)는 "성(sexuality)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체적·생리적 특징인 생물학적인 성(sex),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으로 표현

되는 사회·문화적인 성을 비롯하여 성 행동, 가치관, 태도, 감정, 신념 등을 모두 다 포함한다."며 성의 의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p.76~77). 그러면서 "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문화에 따라 변화하며, 성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보건 교과서뿐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5)도 성을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으로서의 성(sex), 신체적·정신적 욕망으로서의 성(sexuality),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특성으로서의 성(gender)"으로 구분하면서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가진다. 사랑과 성이 조화로운 때 바람직한 양성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며 마치 성별을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p.66).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교육부의 이 같은 위험한 성윤리 기준에 따른 교육방침이 미국보다 6년이나

이르게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2015년 5월 15일자 폭스뉴스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교육청 단위)의 중·고등학교(7~12학년)에서 젠더 이론을 교육시킨다는 계획을 접한 부모들이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개인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sex),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성 역할 곧 사회적 성(gender role),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으로 이뤄져 있으며 더 넓은 범위의 성으로 섹슈얼리티(sexuality)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발전한다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계획에 대한 부모들의 반발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방침에 대한 논의 및 발표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해 왔다는 사실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 시켜온 세력들만을 비판할 수도

없다. 그동안 학교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심과 다음세대에 대한 한국 교회가 그동안의 안이한 태도를 인정하고, 지금부터 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고 한걸음씩 순종할 때다.

문제는 현행 교과서가 담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저 하나의 이론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2017년 5월 5일자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며 유전자 단위에서도 6500개의 유전자들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짓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때 만든 정신적 성을 인정하는 트랜스젠더 정책을 폐기하고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만을 성별로 환원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또 헝가리 역시 "젠더 이론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믿음에 불과하다."며 대학에서 연구를 금지했다. 2018년 10월 13일부터 젠더 연구 관련 과목을 대학 석사 학위 과정과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당시 헝가리 부총리 졸트 세미엔은 "젠더 연구는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과목과 전혀 상관 없다."며 "젠더 연구는 이념이지 과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교과서는 2009년부터 이미 그것이 사실인 양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젠더 이론을 교육시켜 왔다. <계속> [GNPNEWS]

베트남 공산당, 종교자유 옹호를 외치는 기독교인들 체포·구금

베트남이 경제를 개방한 이후 서구 사회는 베트남 공산당(CPV)에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2년간의 괄목할만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로 2016년 이후 공산당 서기장 겸 베트남 국가주석 응우옌 푸 쯙(75)이 베트남 공산당 지배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베트남 인권은 눈에 띄게 악화됐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체제 생존은 돈에 달려 있다. 돈은 대중을 만족시키고, 공산당 통치를 정당화시키며, 모든 반대를 잠잠하게 해준다.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6월 30일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돈이 베트남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베트남 공산당에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

시켜 준다. 그런 가운데 억압받고 박해 받는 소수 집단인 약 9.4%의 베트남 기독교인들(가톨릭 7.7%, 개신교 1.3%)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민주주의, 사회 정의, 인권 옹호의 선봉에서 있다.

2019년 4월 29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미 국무부에 베트남을 1단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18년 베트남의 종교자유 상황은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했다. 경찰과 공산당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법률은 가혹하게 바뀌고 있으며, 감옥에는 점점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평화적인 운동가들로 넘쳐나고 있다. 체포되기 전부터 납치되어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개신교 목사인 응우옌 트롱 톤(48)의 고초

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의 죄목은 '종교자유 옹호'다.

지난 5월, 베트남 중북부 응에안 성 당국은 응에안 예술문화대학에서 발성을 가르치는 가톨릭성도인 응우옌 냥 틴(42)을 체포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인도주의자 틴은 집에서 아들과 아침식사를 하던 중 체포됐다. 그의 아내 응우옌 티 틴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관할 당국은 이 과정에서 체포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공식 보도에 따르면, 틴은 베트남을 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대중에게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88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263명의 '사회운동가(양심수)'를 구금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 국제종교자

유위원회가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 양심수 244명,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구금된 운동가 20명이 있다고 한 수치와 일치한다.

RFA는 베트남의 양심수들이 구타당하고, 목 쪼임을 당하고, 독방에 감금되고, 강제 약물치료를 당했다는 내용의 수많은 기사를 실고 있다. 이 죄수들 중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다. 이들 중 몇몇은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정의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그 외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거나 실천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평화적인 활동을 이유로 신체적 폭행, 구금, 추방 등 끔찍한 박해를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중앙



▶ 숲에서 예배하는 몬타나르드 기독교인 (출처: asiatictimes.com 캡처)

고원지대에 거주하는 개신교인 소수민족 몽(Hmong)족과 몬타나르드(Montagnard)족 1만 명 가량은 무국적자로 생활하고 있다. 이는 관할 당국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신분증, 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22)

홍수 전에는 기압이 2배... 항상 에너지가 넘쳤을 것이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홍수 전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그때는 산소량이 지금보다 많았을 것이다. 산소량이 많으면 몸의 치유를 빠르게 한다. 만일 기압을 2배 높이고 산소를 늘리면 헤모글로빈이 늘 하듯이 산소를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그것은 우리가 수백 마일을 피곤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아담과 하와는 차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어디든지 힘들지 않게 달려갈 수 있었을 것이다.

홍수로 사라진 기압

실제 오늘 날에도 고압 산소로 병을 치료하고 있다. 텍사스의 제시카라는 아기가 우물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18개월짜리 아이가 다리가 앞 뒤로 벌어진 채 8인치(약 20cm)짜리 쇠파이프 안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아이는 그 안

에서 이틀 반 동안 갇혀 있었다. 마침내 아이를 파이프 밖으로 꺼냈을 때는 아기 몸의 많은 부분이 혈액순환 부족으로 까맣게 되어있었다. 특히 오른쪽 다리는 뒤틀러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까맣게 되었다. 의사들 중 한 명은 다리를 즉시 잘라내야 한다고 했지만 어떤 의사는 다리를 잘라내기 전 아이를 고압 산소실에 넣어보자고 했다. 아이는 2배 압력의 산소실로 들어갔다. 두어 시간이 지나자 그 아이의 다리가 핑크색으로 돌아왔다. 비록 새끼발가락의 반을 잘라냈어야 했지만, 다리는 구할 수 있었다. 서독에서는 중풍환자를 고압 산소실로 치료했는데 중풍이 놀랍게 회복되었다. 영국에서도 다발성 경화증과 온갖 종류의 병들에 고압 산소실을 이용한다. 인도에서는 한센병을 치료하는데 고압 산소가 좋은 효과를 거뒀다.

한 아이는 고압 산소로 뇌성마비를 치료받고 있다. 의사들은 수술하는 동안 마취 중인 사람에게 산소를 더하면 감염 건수가 반으로 줄고 구토 건수도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뉴욕에서는 고압 산소로 자폐증을 치료했다. 미국의 스포츠팀인 '달라스 카우보

이'는 고압 산소실을 가지고 있다. 고압 산소실에서 부상당한 선수가 2배나 빨리 치유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레곤에 있는 내 친구도 고압 산소실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방문했을 때 고압 산소실에 들어가 봤다. 친구는 나에게 입을 책을 주고 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했다. "문을 닫고 보통보다 압력을 3배 높일거야. 이제 90피트(약 27미터) 아래로 다이빙 한다." 나는 그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한 시간 동안 순수 산소를 3배 압력으로 마셨다. 친구가 나를 꺼내주며 물었다. "기분이 어때?" 나는 이렇게 외쳤다. "온 세상을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끝내주세요!" 홍수 전 세상은 기압이 2배였고, 그렇게 더 많은 산소가 있었다면 항상 에너지가 넘쳤을 것이다.

식물은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마신다.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압축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토마토를 키웠는데 보통보다 더 빨리 자랐다. 그 토마토 나무는 2년 자랐을 때 16피트(약 4.9미터)까지 자랐고 약 900개의 토마토를 맺었다. 이후 그 나무는 더 자라서 40피트(15미터)가 되었고, 이 한 그루



▶ 고압 산소 치료를 받는 소아마비 어린이(출처: soltheman.com 캡처)

에서 1만 5000개의 토마토가 생산되었다. 방울토마토 나무였는데 그 나무의 토마토는 야구공만 했다.

아이오와에 있는 어떤 사람은 "왜 새는 해뜨기 한 시간 전부터 지저귀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겼다. 그는 새의 지저귀기 앞 세포의 기공을 열어주는 특정 주파수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잎을 돋보기로 보면 구멍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열려서 이산화탄소를 들여보낸다. 아침에 식물들을 깨워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클래식 음악에서 많

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는 베토벤과 바흐, 쇼팽의 음악을 자신의 옥수수 밭에 틀어주었다. 그의 이웃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 옥수수나무가 15피트(4.6미터)로 자라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클래식 음악을 호박에 들려주었더니 호박이 잎 하나에 무려 5개씩 열렸고, 검은 호두 나무는 평소보다 2배나 빨리 자랐다. 감자는 2~3배 크기로 자랐고, 멜론은 축구공 만하게 자랐다. 이것을 음파재배라고도 부른다.

[GNPNEWS]



선교 통신 | K국 (1)

이혼과 미혼모의 굴레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러시아 연방의 나라들은 남녀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통계상으로는 남자 100명에 여자 90명이지만 현재 혼인 시기에 이른 20대와 30대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눈에 띄게 높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져서 여성들이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추세다 보니 과거 무슬림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던 풍습이 근래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자는 3번 정도 결혼을 하고 여자는 1번 결혼하기도 어렵습니다.

K국의 딸띠코르간 지교회의 상황도 이런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혼 후 혼자 사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자매들도 많습니다. 그중 엄마와 아이들이 사는 여섯 가정을 모델로 보자면 엄마와 아이 넷이 사는 가정이 2가정, 엄마와 아이 셋이 사는 가정이 2가정, 엄마와 아이 다섯이 사는 가정이 2가정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의 아

빠가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에 있는 알마티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알마티 교인들은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의 숫자가 비교적 두세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K국에서는 아이 없이 혼자 늙어가는 여자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곳의 자매들은 20대에 시집을 못가면 정상적으로 초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K국 한 공원의 풍경.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주변의 결혼 못한 많은 자매들이 30세가 지나면 아무도 모르게 임신을 합니다. 대부분 잠깐 만난 사람의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임신 사실에 대해 부모나 친척, 친구들 모두 자세히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매들이 주변에 많기도 하거니와 말 못하는 그 사정을 이해해주고 임신을 축하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이혼한 가정과 미혼

모가 많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고 교회 생활을 잘하던 자매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저와 아내가 많이 힘들어 했는데, 정작 본인과 다른 성도들은 오히려 임신을 축하해주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정의 깨어짐을 당연히 여기는 현실

자녀에 대한 인식도 한국의 풍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속해있고 양육을 주로 엄마가 하다 보니 자녀가 성장해서도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를 혼자 키워낸 엄마는 자녀가 결혼해도 생계를 자녀에게 의존합니다. 그러한 부담이 자녀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줘서 다시 불화와 이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마티 교회에도 매춘에 종사하던 여성이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14세 된 딸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아이도 엄마

와 같이 그런 업소로 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결혼관도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이혼을 한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를 보러 와서 다시 예전 아내와 잠을 자고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지요. 물론 이혼한 남편은 그 후 두세 번 더 결혼한 경우가 많고 현재 부인이 있더라도 예전에 헤어진 아내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이러한 일은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속임의 굴레가 끊어지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GNPNEWS]

K국 = 오묘한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교육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소금과빛국제학교 교장 박경희·김현태 선교사 부부



©복음기도신문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가 있다. 프놈펜에 있는 소금과빛국제학교(이하 소빛학교)이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인 자녀를 위한 학교가 아니다. 캄보디아 현지인 목회자와 성도들의 자녀인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한국어로 교육하고 있는 곳이다. 초등학교 4학년 부터 12학년까지 재학중인 이 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박경희 선교사와 부인 김현태 선교사를 만나, 이 학교를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청취했다.

-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0여 년 전 처음 캄보디아에 왔을 때 한 친구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학사(學舍) 출신의 학생이 대학교에서 전체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시골의 초등학교 교사로밖에 갈 곳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일할 수 있는 자

리도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나라 다음세대가 캄보디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외국의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이곳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이들의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망도 큼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으로 유학갈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야겠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소빛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얼굴은 캄보디아 현지인인데, 대화를 해보면 한국 청소년들 같다. 특히 졸업을 앞둔 고학년 학생들은 완벽한 한국어 구사능력에 글씨 또한 반듯하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꿈꾸다

- 졸업생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유

학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4기 졸업생이 배출됐는데, 24명 모두 한국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유학중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한국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학업과 함께 부족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아주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더군요.”

- 한국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있나요?

“아직 대학 졸업생이 없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아이들도 있고, 앞으로 다양한 사례가 나오겠죠. 학생들 중에는 앞으로 캄보디아에 돌아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거나 경찰을 희망하며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다양한 꿈을 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기도하

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학생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얘기에 앞서 지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야 되겠네요. 저희 부부에게 이 학교는 선교지에서 설립한 두 번째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볼리비아에서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1997년에 선교사로 파송 받아 간 곳에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통해 믿음의 사람을 배출해내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도입했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줬죠. 졸업생이 그곳에서 일류대학으로 손꼽히는 상시몬대학 등에 입학하면서 학교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섬기는 학교와 교회가 해발 2000미터, 4000미터에 있었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고산병에 걸린 것이죠. 안식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너는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웠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배출한 것은 맞지만 믿음의 사람을 양육했다고 말할 수는 없더군요. 그래서 볼리비아 사역을 이양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산병으로 선교지를 떠난 이후 갖게 된 질문

-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오시게 됐군요.

“학생들을 이 나라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0년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입학생으로 받아 1년 정도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과목 외에도 영성훈련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기숙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나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일반 교과과정과 함께 성경공부와 노작(勞作)활동, 즉 근로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립심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목회자 자녀들을 주대상으로 하

고 있어요. 캄보디아 기독교 교단을 통해 학생 추천을 요청하지만, 주로 재학생들의 추천으로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이 학교를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 소개받은 부모들이 학생들을 보내, 이 학교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에 대해 이해함을 갖고 와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한 해에 열 명 넘게 선발합니다. 그러나 기숙학교를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이어서 어려움도 있어요. 탈락하는 학생이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상급생들이 잘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죠.”

-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수업 참여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에서 영어와 한국어라는 2개 언어를 더 배워야 해요. 쉽지 않죠. 그래도 곧잘 따라와요. 학습의 어려움보다 기숙학교의 특성상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학생들 입장에서 외국인과 함께 사는 건데,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이곳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기에 지금 한국 유학생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해요.”

현재 이 학교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대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작업 활동에 참여토록 해 자신이 노동을 통해 수업료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단순히 공짜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며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아내인 김현태 선교사에게 이 학교를 섬기면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었다.

-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몇 차례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침수지역이어서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이후 몇 차례 이사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초기에 저희 재정을 80%까지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후원이 중단됐어요. 어려운 시기였죠.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이 새로운 후원교회를 연결해 주셨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6면에 계속)

“캄보디아를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고 싶어요”

캄보디아 중부에 위치한 캄뵁툼에서 학교 교사를 하던 부모님의 권유로 12살에 소금과빛국제학교(소빛학교)에 입학했던 니카 자매. 6년간 이 학교를 다니다 한국어능력시험 6급에 합격한 뒤, 2017년에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이다.

유학생이긴 하지만, 선교사란 심정으로 오게 됐다는 니카 자매의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봤다.

“지하철을 타보면 사람들이 참 썩하게 느껴져요. 행복한 느낌은 찾기 어렵고 경쟁에 많이 지쳐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이 선교지같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고2 때, 태국에서 열린 과학컨퍼런스에 참여했다가 환경 부스를 재미있게 봤던 게 계기가 되어 환경을 전공으로 하게 됐어요. 대학원에 진학해 더 공부하고 고국에 돌아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요.”
- 한국의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도 있을텐데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입학하기 전 차별이나 무시 받을까 염려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입학한 첫날 크리스천 친구를 만난 이후, 현재는 함께 목상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또 소빛학교에서 어렵게 보냈던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국어를 1년 배우고 통역을 하게 됐어요. 어려워 울기도 했지만 순종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목표가 있나요?

“먼저 캄보디아를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고 싶어요.”

- 소빛학교를 모르는 분에게 짧게 학교를 소개한다면?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죠. 학교에서는 눈뜰 때부터 잘 때까지 함께 살면서 사람들과



©복음기도신문

니카 자매(한양대 3년)

함께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그 감사함은 몇 시간을 말해도 부족하죠. 선생님들은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은 희생을 하고 계세요.”

이곳을 졸업한 감사와 은혜를 아는 반듯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막의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새비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성장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하는 통로로 서기를 기도한다. (GNPNEWS)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의 복음 (4)

“그대의 몸을 하나님께 담대히 드리라”

헌신의 두 번째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말이다. 지금 확실히 주님 편을 택해야 한다.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자. 단순하고 오직하게 주님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유의지는 반역에 불과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 외에 다른 길이 없어야 한다. 그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군대 직속상관만도 못한 분으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다운 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소유권도 주님께 넘어감이 마땅하다. 지갑, 통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 땅은 산 제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하며 매순간 분별해야 할 곳이다(롬 12:2). 왜냐하면 세상이 사는 우리의 육적 자아, 옛사람의 성향과 밀접하게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망성(將亡城)에서 벗어나야

한다. 끈적거리는 옛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부추길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자기 사랑에 미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내가 죽은 십자가’만 사랑해야 한다(갈 6:13).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완전히 죽음으로 넘겨버린 옛자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는 태도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해악임을 명심하자. 철저히 지원수 대하듯 이 세대와 죄, 그리고 옛자아의 성향들을 대하자.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는 진리를 누릴 수 있다. 매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일은 한 몸, 즉 우주적 몸 된 교회를 이룩하는 것이다(롬 12:3~5).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모여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교회들을 주님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다. 손과 발의 기능이 다르지만 한 몸 안에 있듯이 열방의 각 교회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룬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엡 4:10~16). 이 연합이 큰 비밀(엡 5:29)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가장 큰 비밀과 신비는 하나님과 일체 무관했던 우리를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일이며 그 복음의 영광에 따라 우리는 산 제물로 헌신, 즉 나의 할 수 없음을 넘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친히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삶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모든 일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결국 이 모든 헌신을 통해 주님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일을 성취하고자 할 것이다. 온전히 헌신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신비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다. 우리



일러스트=노주나

의 작은 순종을 통해 불가능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한 주님께서 지금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헌신하라. 두려워 말고 헌신하라. 멈추지 말고 헌신하라. 지금 헌신하라. 그대에게 전할 최

고의 축복의 권면은 ‘주님께 헌신하라.’는 것이다. 그대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담대히 드리라! (2017년 6월)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1년 52주 연속. 연쇄.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

▶ 1~6권 기도정보집은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
▶ 긴급기도정보 각 권 별책 전 6권
정가 74,000원, 세트가 66,000원 (총 12권)

느헤미야52기도가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1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기도정보를 읽고 기도하다보면 옛자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다 이루신 주님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느헤미야52기도가 우리 부부를 살렸습니다” _J국 000선교사 부부

구입문의 Purchase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진행되는 학교”

로 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외형적인 어려움을 통해 제가 한없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은 아프지만 감사한 일이지요.”

-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지금 동남아시아 몇몇 나라에서 동일한 형태의 학교를 시작하자는 요청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육선교에 함께 하는 동역자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 6가정과 단기 사역으로 섬기는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숫자로는 절대 부족이지요. 더 많은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다양한 비전을 갖고 있는데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

도록 기도해주세요.”

박경희·김현태 선교사는 몇 년 전 함께 믿음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교육선교사들을 여러 나라에서 만났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고 싶은 열망은 동일한 선교사들이 매년 만나, 각자의 커리큘럼과 교육방법 등을 나누고 있다. 올해는 캄보디아에서 이들 교육선교사들이 모여, 제4회 교육선교사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교제하며,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방법을 나눴다. [GNPNEWS]

프놈펜=복음기도신문 C.K.

▶소금과빛국제학교전경 ©복음기도신문



“모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성도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들의 싸움이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을 소개한다. <편집자>

장애아기로 태어난대도 주님은 선하시요

결혼 한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 그러나 아기는 선천적으로 약했다. 심장소리를 듣기 위해 임신 7주차에 산부인과에 갔을 때, 의사는 아기가 작고 심장도 많이 느리게 뛰는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어차피 안 될 아이는 한 주 기다릴 것 없이 빨리 지우는 게 낫다며 부리나케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가족들 성화에 등 떠밀려서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 병원에 갔다. 약하긴 해도 내게 온 아이인데, 아직 아기가 살아 있는데 내가 먼저 지우는 건 낙태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일단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남편과 예배를 드리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받았다. 아기를 품는 것이 내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마음이 들었다. 아기가 장애가 있는 채로 태어난다고 해도 선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감당하자고 우리 부부는 다짐했다. 그러나 아기는 서서히 심박수가 줄어들다 멈추게 되었고 나는 결국 소파술을 받았다. 결과는 동일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부부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상황보다 더 큰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앞으로의 걸음도 선하신 주님을 의지한다. <경북 경산시 김혜연>

나와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새끼고양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오게 됐다. 잘 걷지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고양이를 공동체 식구들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다. 하지만 고양이를 싫어하던 나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난 고양이가 깨끗지 않을뿐더러, 또 안아주면 나를 할퀴고 물까봐 두려웠다.



일러스트=고은선

하지만 며칠 고양이 옆을 지나다니며 어미 없이 아파서 고생하는 고양이가 불쌍해졌다. 지켜보니 발톱을 세워 기어오르고 이빨로 물어뜯는 것이 고양이의 타고난 특성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나니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이후부터는 고양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함께 돌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이 깨

달아졌다. 나와 다른 지체의 모습을 지적하고 꼬집어주기 바빴다. 내가 그렇게 할수록 지체들은 내게 마음을 닫고 힘들어했다.

그러다 고양이 사건을 통해 이 모든 문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양이가 더럽고 무섭다고 생각했으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고양이가 받아들인 것처럼 나와 다른 지체들도 내 기준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함을 주님은 말씀 해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체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었다. 이제 내 기준을 버리고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며 주님께 순종을 드리며 나아간다. <충남 서산시 고은혜>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지?

‘콜록, 콜록’ 며칠째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 입원하고 항생제를 투여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탈진했다. 먹지도 못하고 기력이 쇠해질 대로 쇠해진 채 퇴원을 하고 집에서 한방치료를 받았다. 왜 이런 시

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순간 주치의를 원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선지자 ‘요나’가 생각났다. 내 눈에 비친 ‘요나’는 이기적이고 교만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을 일삼았다. 그리고 곧 ‘요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치위는 그런 나를 고쳐주시려는 박넝쿨과 벌레였다. 사실 한동안 나의 교만한 마음과 씨름하고 있었다. 주님께 나아가고 지며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고치고 계신다.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나를 더욱 고치시도록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린다. <강원 홍천군 정효신>

[GNPNEWS]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북한에 강제실종 된 사람이 20만 명 이상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국가가 개입된 북한의 42건의 작년 강제실종 사건에 대해 유엔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은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다음 달 열리는 제 42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 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실종 사건이 총 275건에 달했다. 하지만 북한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등 실무그룹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조사를 위해 2015년 5월에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지난 1월에 다시 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보냈다.

이뿐 아니라 앞선 보고서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950년 한국

전쟁 초기 납북된 16명,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바다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끌려간 어부 17명, 북한 주민 3명, 탈북민 2명 등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한 바 있다.

강제실종은 피해자들이 불법적으로 납치돼 구금되고, 심문 중 고문을 당하며 궁극적으로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들은 주로 한국 국민들로, 크게 한

국전쟁 중 납북된 전시 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전후 납북자로 구분된다. 북한은 한국전쟁 중 정치인과 학자, 종교인, 예술인, 기술자 등을 강제 납치해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다. 이런 전체 전시 납북자 수가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또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한국 국민들을 납치했다. 이런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에 516명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90%는 어선에서 붙잡힌 뒤 강제실종된 어부들

이고, 이밖에 납치된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군인, 해안경비대원, 청소년 등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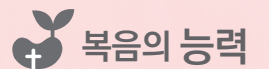
한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에 “북한이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서 한국 국민들과 탈북민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도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에 희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COI의 최종보고서에서는 6·25전쟁 당시 민간인들과 국군포로는 물론 납북 어부와 북송 재일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GNPNEWS]



▶ 지난 5월 16일 납북 피해가족 단체들과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정권에 납치·억류된 피해자들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VOA KOREA 캡처>



가장 위대한 방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의 열심에 감동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의 바깥 위에서 드리는 기도

에 반드시 응답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필요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인가?

기도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하라. 진실한가?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그리고 우둔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가? 기도는 전능하신 그리스도와 소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내에서 전능한 결과들이 발생함을 뜻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바로 중보기도다. [GNPNEWS]

<제자도(2012), 오스워드 챔버스>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

피카소와 르노와르 <물랭 드 라 갈레트>

견디지 않고 누리는 천국의 관점

파리의 핫플레이스였던 물랭 드 라 갈레트(Moulin de la Galette)를 그린 두 그림을 보자.

작가의 시각 차이에 따라 같은 장소도 달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위쪽은 피카소의 초기 회화로 예술의 도시 파리로 갖 상경한 스페인 촌뜨기 피카소의 지난날을 보여준다. 서툰 불어에 연고도 전혀 없던 피카소는 물랭 드 라 갈레트에서 주눅만 들고 말았다. 여인들은 흘끗거리며 피카소를 비웃는 듯 그려졌다. 그러나 이 우울했던 초기작은 훗날 비싸다 못해 희귀작이 될 정도로, 그는 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한편 아랫쪽 작품은 르노와르의 낙천적이고 진보적인 취향을 반영한다. 당시 아방가르드로 주목받았던 인상파 풍으로 그려진 이 그림에는 여가를 즐기는 파리지연의 모습 너머로, 새로운 예술에 대한 르노와르의 기대와 확신이 반영되었다.

이처럼 시각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에 기록된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깨닫는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가 그러하듯, 아침과 늦은 오후에 불러온 일꾼들 모두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아침에 온 일꾼 하나가 주인에게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 우리'에게 어떻게 오후 일꾼과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느냐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당한 항변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일꾼이 시각을 달리하여 포도원에서의 하루를 견디지 않고 누렸다면 어땠을까? 오후에 온 일꾼들이 보지 못한 포도원 아침의 싱그러움을 경험하고, 영근 포도를 한 송이라도 더 만져 볼 수 있었으며, 포도원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무엇보다 선한 포도원 주인과 단 한 시간이라도 더 오래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수고

하고 견딘 하루였을까? 아마 늦은 오후에 온 일꾼에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말했을지도 모른다.

교회 안에서 사역과 봉사의 분량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함으로 인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었다면, 시각이 바뀌기를 먼저 기도하자. 먼저 된 자, 나중에 된 자 가릴 것 없이 천국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리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단지 수고로움을 견뎌만 아니냐, 선한 주님과 교제하는 누림이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침 일꾼은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뿐 아니라, 덤으로 한 데나리온까지 얻어갈 것이다.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 작품설명: 피카소, <물랭 드 라 갈레트 (Le Moulin de la Galette)>, 1900년, 캔버스에 유채(위)
르노와르, <물랭 드 라 갈레트에서의 춤 (Bal du moulin de la Galette)>, 1876년, 캔버스에 유채(아래)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선교에 사용하셔서 기뻐요

나는 현재 기독교인은 1%, 무슬림이 80% 정도 되는 나라의 대학에 다니고 있다. 4~500명 되는 학교의 기독교인은 6~7명 정도였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는 K국 내 모든 캠퍼스에 종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였다. 내게도 전도는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캠퍼스에 가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두세 명뿐이었기에 여느 학생들과 같이 그 나라 언어를 배워나갔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힘들었다. 외로움이 밀려왔고 한 문장조차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을 때면 허탈감이 밀려왔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나 혼자서만 하지 못했다. 교수님의 꾸지람 한마디에 절망한 채로 교실을 빠져나왔다. 기숙사로 향하는 길에 주님께 투덜거리며 질문했다. '과제 하나도 못 알아듣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난 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는 말만 되뇌며 기숙사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한 친구가 내게 말



일러스트=이수진

을 걸어왔다. 뜬금없이. 게다가 내게 이슬람을 믿으라고 말했다. 평소 같았다면 그저 웃고 얼버무리며 지나쳤을 텐데 이미 화가 나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렇게 의도치 않은 토론이 시작됐다. 이슬람을 믿으라는 친구의 면전에 대고 나는 이슬람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이슬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난 그 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흥분해서 큰소리로 말하다 보니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무슬림 친구가 당황하기 시작했고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큰소리로 외쳤다. 정신없이 많은 말을 쏟아낸 후에 기숙사로 올라와 침대에 앉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언어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교는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 못 전하니 걱정하지 말고 그저 마음껏 나랑 여기서 행복하게 데이트 하자! 내가 나의 때에 너를 사용할 거란다." 그때 알게 되었다. 내가 하는 선교는 망할 수밖에 없음과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끼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누림이 전부임을 말이다.

그 이후 이슬람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슬람에 관한 서적을 읽었다. 거기에 보니 샤리아 법에 따르면 나는 이미 사형이었다. 짧은 순간 두려움이 다가왔다. 흑사라도 오늘 복음을 전한 아이들 중 무슬림 지도자의 자녀가 있다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후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졌다.

왜 사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고 말한다. 나의 어린 시절을 묻는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농구를 했다. 밥을 먹기도 하고 신나게 놀기도 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선교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다. 그러한 기쁨으로 오늘도 달려간다.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기에 자신 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가장 행복한 학생 선교사다! [GNPNEWS]

사무엘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8. 16 ~ 8. 28 (가나다 순)

개인

강경영 강성민 강주선 고은영 김선희 김성훈 김애심 김혜신 박상기 박숙자 손예린 원종란 윤경석 이경형 이동희 이은주 이종훈 이현희 정영숙 정해월 조경미 조명숙 조제순 지소영 차인순 차정규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꿈꾸는교회 김화제일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사교회 반석중앙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열매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해브론원형학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